

# 무허가 바비큐장·무개념 전수조사...설마했다 또 터진 火魔

### 담양 펜션 화재참사...달라진 것 없는 안전불감증

#### 소화기 비치 안돼...郡은 바비큐장 건립 시기도 몰라 작년 담양소방서 양호 판정한 서류로 올 전수조사 '끝'

담양 펜션 화재 참사는 세월호 침몰 참사·정성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교훈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설마, 관철을 거야'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밀려 '안전'을 포기한 사회 분위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안전 의식을 지도하고 계몽해야 할 기관·관리들의 '좋은 게 좋은거야'라는 식의 '무개념'도 바뀌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무허가' 건축물...점검해도 '몰라' = 담양군은 지난 15일 밤 화재가 발생한 대덕면 펜션의 바비큐장이 임시 가건물로서,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검토를 거쳐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담양군은 지난 2005년 객실(11개)·식당 등 4개 건축물에 대한 숙박업 허가를 내줬지만 화재가 발생한 바비큐장은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무허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화재 당시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서 화재 발생을 발견한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담양군은 해당 바비큐장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도 명확히 판단을 내리지 못한 데 이어 해당 건축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조차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행정기관의 '무신경·무능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담양군은 매년 2 차례의 위생 점검을 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펜션이 소화기 한 대 갖춰놓지 않고 버섯이 가건물을 짓고서 솥불바비큐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실점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 지시로 전수 조사 했다더니...

무허가 화기 취급 시설도 '양호' = 펜션 화기 취급 시설에 대한 '결합기' 점검도 마무리에 오르고 있는 형편이다.

전남도 소방본부 등도 올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취지에 맞춰 담양군(숙박시설 84곳 등 3340곳)을 비롯한 전남지역 다중이용시설 3만6424곳에 대한 '특별 소방안전 점검'을 받았지만 해당 시설의 가건물식 바비큐장 운영·부실한 소화설비 비치 상태 등은 지난해 7월 이뤄진 담양소방서의 점검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다.

담양소방서의 '양호'하다는 결과를 현장 조사없이 그대로 반영해 '전수 조사 결과'에 포함시키는 '생색내기 점검'을 벌인 것이다.

화재가 발생했던 바비큐장의 경우 20명이 넘는 인원이 머무를 수 있는데도 소화기 하나 갖춰놓지 않아 화재 당시 투숙객이 다른 건물에서 가져와 진화 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들은 "바비큐장에 소화기가 없어 옆 건물에서 들고 나와 진화를 시도했지만 1분 아니 30초만에 꺼졌다"고 진술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소규모 펜션인 탓에 정기적인 소방 점검도 없었고 화재 경보기 등 소방 설비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 소방본부측은 "지난해 7월 해당 숙박시설을 점검, 올해 전수조사 기간에는 서류상 점검으로 끝냈다"면서 "건축물 대장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난 15일 밤 담양군 대덕면의 황토흙집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나 투숙객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가 진압된 후 16일 새벽 소방대원과 감식반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담양=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다른 펜션도 소방장비 불량 마찬가지로...당국은 형식적 점검

### 인근 펜션 둘러보니

16일 오후 3시30분께 담양군 A펜션 진입도로는 30~40도 경사에 도로 폭도 2m에 불과했다. 펜션 이름이 적힌 간판을 따라 100m 가량을 들어가니 산 중턱에 위치한 펜션 1호실 발코니에서 투숙객 4명이 바비큐통을 이용해 고기를 구워먹고 있었다.

펜션은 발코니를 비롯,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지만 바비큐를 하는 주변에서 소화기를 찾기가 힘들었다.

방 안에는 화재 감지기는 물론 유도등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밤 시각,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도등이 없는 탓에 빠져나갈 입구를 찾기도 쉽지 않아 보였다.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께 담양군 B펜션, 방안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배터리 수명이 다한 탓에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았다. 소방특별점검에 대비,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았다는 의심을 살만했다. 이 펜션의 경우 5년 전 일반 전원주택에서 펜션으로 업종을 변경했지만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은 등 갖춰야 할 소방 시설은

전무하다시피했다.

해당 시설의 경우 매년 소화기 비치와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관할 지역 내 안전을 담당하는 자치단체들도 좁은 지역 사회라는 특수성을 감안, 형식적 점검에 머물고 있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특히 일부 펜션은 숙박시설 규모가 적어 소방관계법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투숙객들의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높은 형편이다. 또 소방차 등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펜션들도 적지 않아 비상 상황에 맞는 대책이 요구된다.

전남도가 파악한 펜션, 농어촌 민박시설 등 숙박업소는 4154개소로, 이들 중 소규모 펜션들의 경우 열악한 여건 등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많다.

담양에서 펜션을 운영했던 정모(37)씨는 "펜션 중 상당수가 각종 소화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 전기, 가스 시설도 불량한 곳이 많다"며 "한 번 불이 나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담양=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 투숙 인원·주인 소재 안밝혀 유가족들 분노

### 경찰 브리핑 빈축

경찰이 담양 펜션 화재와 관련, 알맹이 없는 수사 브리핑으로 빈축을 샀다.

사상자가 10명에 이르는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하는데, 새벽까지 이뤄진 현장 참석자들 조사 결과와 담양군과 소방 당국의 조사 결과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조차도 "수사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무능한' 경찰이라는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용석 담양경찰서장은 16일 담양군 대덕면안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고 현장인 바비큐장에 있던 인원, 건물주 소재 파악 여부 등에 대해 "수사상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비큐장의 불법 건축물 여부 ▲실질적 주인으로 알려진 북구 최모(55) 의원 조사 여부 ▲사고 현장에 있던 인원 수 등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고만 했다.

신속한 중간 수사 결과를 기대했던 유가족들은 왜 브리핑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반발했다.

유가족 A씨는 "불이 난지 하루가 다 돼 가는데, 경찰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당시 몇 명이 있었는지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경찰의 지부진한 수사행태와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담양=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 결혼 두달 앞두고...갓 결혼한 새신랑...첫 비행 기쁨 가시기도 전에...

### 안타까운 사연들

담양 화재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의 절절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담양 펜션 화재로 숨진 정모(30)씨의 경우 지난 2007년 같은 학교에서 만난 여자친구(29)와 7년간의 열애 끝에 내년 1월 11일 결혼날짜를 잡아놓은 예비 신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의 사고소식을 접한 뒤 현장을 찾은 아버지는 "아들놈 곧 결혼한다고 예식장까지 다 준비했는데..."라며 울먹였다.

정씨는 결혼식 뒤에는 부산에 거주했

던 예비신부와 함께 광주에 신혼 살림 꾸릴 기쁨에 들떠있던 것으로 주변인들은 전했다. 정씨 사촌형(36)은 "취미생활로 수영과 축구는 물론 겨울이면 스키 보드 강사로도 활동할 정도로 운동신경이 좋았다"며 "그렇게 운동신경이 좋은 동생이 불길에 피하지 못한 게 아니라 책임감이 강한 성격에 마지막까지 후배들을 챙기려다 변을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이날 사고 현장 출구에서 다른 동료들과 뒤엉킨 채로 발견돼 마지막까지 동료들과 함께 탈출하려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모(35)씨도 갓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새신랑인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이 더했다.

희생자 중 유일한 재학생인 고모(여·18)씨는 생애 첫 패러글라이딩을 경험한다는 기쁨으로 담양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고씨 삼촌은 "간호사가 꿈인 조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어떻게든 대학을 가려는 등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해온 귀여운 딸"이었다며 "초등학교 동생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유모(40)씨는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창단 멤버로 후배들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선배로 이날 부인, 5살짜기 딸과 패러글라이딩을 위해 찾았다가 희생됐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아파트 직원에 상습 행패 '철창행'

○--아파트 관리소장 과 직원들에게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온 60대 여성이 철창신세.

○--16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A(62)씨는 지난 10월 12시50분께 북구 용봉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신발을 던져 유리창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데 이어 이를 막아선 관리소장 안모(59)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최근 4개월간 12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혐의.

○--경찰은 A씨가 여성인데다 적지 않은 나이를 감안해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매년 선처해왔지만, 반복되는 피해 신고에 따라 결국 A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이종행기자 golee@

당뇨환자를 위한 매출 3% 기부금

**전남대학교병원**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5억원 가입

**H 현대해상화재보험**

당뇨병 환자도 부담없이 드실수 있는

# 천연설탕 토디팜 재거리

순수함을 간직한 청정지역 미안마의 자연선물

천연설탕  
자연산  
100%

**런칭 기념 2+1**

• 시럽 프리미엄(750g)	28,000원	무료배송
• 시럽 일반(750g)	22,000원	
• 가루(1kg)	38,000원	
• 고체(1kg)	36,000원	
• 강황(500g)	15,000원	

각종류별도/시럽/가루/고체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광주은행 040-121-698715 네이처코미

**약으로 쓰이는 아자수액을 끓여 만든 오리지날 천연설탕 미안마 재거리**

1. 낮은 당 수치로 당뇨병 및 고혈압 예방
2. 신경계와 심장에 좋음 / 피를 맑게 함
3. 낮은 열량 / 다이어트 효과
4. 기력회복 / 정력에 도움
5. 소화불량 / 변비예방
6. 폴리페놀 성분 / 아카시아 벌꿀의 20배 /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7배 / 비타민C,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

단맛을 내는 "모든음식"에 사용하세요

식약청 검역번호 41762-14-002447U

건강 100세를 기원하는 천연식품기업

**네이처코미**

주문상담 **1899-8752**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1 금양빌딩 603호 네이처코미